

1. <보기>의 빈칸에 들어갈 단어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군락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개미가 채택한 경영방식은 철저한 분업제도이다. 개미사회가 성취한 분업 중에서 사회학적으로 볼 때 가장 신기한 것은 이른바 () 분업이다. 여왕개미는 평생 오로지 알을 낳는 일에만 전념하고 일개미들은 그런 여왕을 도와 군락의 ()에 필요한 모든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자신의 유전자를 보다 많이 후세에 남기고자 하는 것이 궁극적인 삶의 의미라는 진화학적 관점에서 볼 때, 자기 스스로 자식을 낳아 키우기를 포기하고 평생토록 여왕을 보좌하는 일개미들의 행동처럼 불가사의한 일도 그리 많지 않다.

- ① 경제(經濟) ② 번식(繁殖)
③ 국방(國防) ④ 교육(教育)

2. <보기>의 밑줄 친 ㉠과 ㉡의 사례로 옳지 않게 짝지은 것은?

—<보기>—

제1항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 소리대로 적되, ㉡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 | | | | |
|---------|-----|-----------|-----|
| ㉠ | ㉡ | ㉠ | ㉡ |
| ① 마감 | 무릎이 | ② 며칠 | 없었고 |
| ③ 빗갈 | 여덟에 | ④ 꼬락서니 | 젊은이 |

3. <보기>의 밑줄 친 부분의 사례로 옳지 않은 것은?

—<보기>—

제51항 부사의 끝음절이 분명히 ‘이’로만 나는 것은 ‘-이’로 적고, ‘히’로만 나거나 ‘이’나 ‘히’로 나는 것은 ‘-히’로 적는다.

- ① 꼼꼼히 ② 당당히
③ 섭섭히 ④ 정확히

4. <보기>의 ㉠~㉣에 들어갈 사자성어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투자자들은 제각기 제 살 구멍을 찾아 (㉠)을 서두르는 거대한 개미 떼와도 같이 이리저리 쫓리고 있었다. 어린 시절 뛰놀던 동네는 재개발로 인해 (㉡)라 할 만큼 큰 변화가 있었다. 오래 길들인 생활의 터전을 내준 걸 후회했다. 뒤늦게 후회해 봤자 (㉢)이었다. 수사팀은 거기서부터 추리가 막히고 (㉣)에 빠져드는 느낌이었다.

- ① ㉠ - 자가당착
② ㉡ - 상전벽해
③ ㉢ - 만시지탄
④ ㉣ - 오리무중

5. <보기>의 작품에 대한 감상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기>—

껍데기는 가라.
사월도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는 가라.
동학년(東學年) 곰나루의, 그 아우성만 살고
껍데기는 가라.

그리하여, 다시
껍데기는 가라.
이곳에선, 두 가슴과 그곳까지 내는
아사달 아사녀가
중립(中立)의 초례청 앞에 서서
부끄럼 빛내며
맞질할지니

껍데기는 가라.
한라에서 백두까지
향그러운 흙가슴만 남고
그 모오든 쇠붙이는 가라.

- ① 반어적 어조로 현실을 풍자하였다.
② 명령과 반복의 기법을 통하여 주제를 분명하게 드러내었다.
③ 우리 민족이 처한 현실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표현하였다.
④ 민족의 통일에 대한 염원을 담고 있다.

6. 띄어쓰기가 가장 옳은 문장은?

- ① 예전에 가 본데가 어디쯤인지 모르겠다.
② 사람을 돕는데에 애 어른이 어디 있겠습니까?
③ 이 그릇은 귀한 거라 손님을 대접하는데나 쓴다.
④ 저분이 그럴 분이 아니신데 큰 실수를 하셨다.

7. <보기>의 설명에 해당하는 속담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훌륭한 사람 밑에서 지내면 그의 덕이 미치고 도움을 받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① 서 발 막대 거칠 것 없다
② 무른 땅에 말뚝 박기
③ 금강산 그늘이 관동 팔십 리
④ 우물에 가 송늬 찾는다

8. 음운규칙 중 동화의 예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권력(權力) → [꺄력]
- ② 래일(來日) → [내일]
- ③ 돕는다 → [돕는다]
- ④ 미달이 → [미다지]

9. <보기>의 ㉠~㉣ 중 조사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것은?

<보기>

식미 ㉠기쁜 ㉡프른 ㉢ㄱㅁ래 아니 그츄썸 ㉣내히
이러 바르래 가느니

- ① ㉠ - 기쁜
- ② ㉡ - 프른
- ③ ㉢ - ㄱㅁ래
- ④ ㉣ - 내히

10. 표준 발음법에 따라 옳지 않은 것은?

- ① 금용[금뉡/그뉡]
- ② 셋길[새:길/썰:길]
- ③ 나뭇잎[나뭇닙/나뭇닙]
- ④ 이죽이죽[이중니죽/이주기죽]

11. <보기>의 작품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기>

이때 뚜우하고 정오 사이렌이 울었다. 사람들은 모두
네 활개를 펴고 닭처럼 푸드덕거리는 것 같고 온갖 유리
강철과 대리석과 지폐와 잉크가 부글부글 끓고 수선을
떨고 하는 것 같은 찰나, 그야말로 현란을 극한 정오다.
나는 불현듯 겨드랑이 가렵다. 아하, 그것은 내 인공의
()가 돋았던 자국이다. 오늘은 없는 이 (), 머릿속
에서는 희망과 양심의 말소된 페이지가 덕셔내리 넘어가듯
번뜩였다.
나는 걷던 걸음을 멈추고 그리고 어디한번 이렇게 외쳐
보고 싶었다.
()야 다시 돌아라.
날자. 날자. 날자. 한번만 더 날자꾸나.
한번만 더 날아 보자꾸나.

- ① 1936년에 발표한 작가 이상의 대표작이다.
- ② () 안에 들어갈 공통 단어는 '날개'이다.
- ③ 모더니즘 계열의 소설이다.
- ④ 결혼을 앞둔 남녀관계를 다루고 있다.

12. 외래어 표기법의 기본 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외래어는 국어의 현용 24자모만으로 적는다.
- ② 외래어의 1음운은 원칙적으로 1기호로 적는다.
- ③ 받침에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만을 적는다.
- ④ 파열음 표기에는 된소리를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3. <보기>의 ㉠~㉣ 중 이 글의 주제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남녀평등 문제는 앞으로 별 의미를 갖지 못할 것이다.
㉡현재의 출산율은 1.17명이다. 한 부부가 아들과 딸 중
하나를 낳아 기른다는 걸 의미한다. 아들 선호사상이야
사라지지 않겠지만 평등 문제는 크게 개선될 것이다.
㉢높아진 평등의식도 긍정적 요인이다. 최근 각계에 여성
진출이 두드러지고 있는 것은 이런 앞날을 예고하는
것이다. ㉣내 딸만큼은 나처럼 키우지 않겠다는 한국
어머니들의 한(恨)이 높은 여성교육 열기로 이어지고
쌓인 결과이기도 하다.

- ① ㉠
- ② ㉡
- ③ ㉢
- ④ ㉣

14. <보기> 작품의 전체 맥락을 고려할 때 ㉠에 들어갈
구절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숲은 만조다
바람이란 바람 모두 밀려와 나무들 해초처럼 일렁이고
일렁임은 일렁임끼리 부딪쳐 자꾸만 파도를 만든다
숲은 얼마나 오래 웅웅거리는 별떼들을 키워온 것일까
아주 먼 데서 온 바람이 숲을 건드리자
숨죽이고 있던 모래알갱이들까지 우우 일어나 물려다닌다
저기 거북의 등처럼 낮게 엎드린 잿빛 바위,
그 완강한 침묵조차 남겨두지 않겠다는 듯 (㉠)
아니라 아니라고 온몸을 흔든다 스스로 범람한다
숲에서 벗어나기 위해 숲은 육탈(肉脫)한다
부러진 나뭇가지들 떠내려간다

- ① 숲은 푸르다
- ② 숲은 출렁거린다
- ③ 바다는 조용하다
- ④ 바다는 깊다

15. 밑줄 친 단어의 성격이 다른 것은?

- ① 새 책
- ② 갓은 양념
- ③ 이런 사람
- ④ 외판 십

16. <보기>를 읽은 독자가 가질 수 있는 의문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무지개’를 ‘공중에 떠 있는 물방울이 햇빛을 받아 나타나는, 반원 모양의 일곱 빛깔의 줄’이라고 사전적으로 풀이하면, ‘무지개’가 우리에게 주는 아름다운 연상이 사라질 정도로 ‘무지개’는 아름다운 우리말이다. 국어의 역사를 잘 알지 못하면 ‘무지개’가 ‘물’과 ‘지개’로 분석될 수 있다는 사실에 언뜻 수긍하지 못할 것이다. ‘무지개’는 원래 ‘물’과 ‘지개’의 합성어인데, ‘ㅈ’ 앞에서 ‘ㄹ’이 탈락하여 ‘무지개’가 되었다. ‘무지개’에 ‘물’이 관계되는 것에 이의를 달 사람은 없을 것이므로, ‘물’은 이해가 되겠는데, ‘지개’는 무엇이나고 묻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문헌에 처음 보이는 형태는 ‘므지개’인데, 15세기 『용비어천가』나 『석보상절』과 같은 훈민정음 창제 초기의 문헌에 등장한다. ‘물[水]’의 15세기 형태인 ‘믈’에 ‘지개’가 합쳐진 것으로, ‘지개’의 ‘ㅈ’ 앞에서 ‘믈’의 ‘ㄹ’이 탈락한 것이다.

- ① ‘믈’의 ‘ㄹ’이 ‘지개’의 ‘ㅈ’ 앞에서 탈락한 것이라면, 탈락의 조건은 무엇일까?
- ② ‘지개’가 ‘지개’에서 온 말이라면, ‘ㄱ’과 ‘ㅈ’의 차이는 어떻게 설명할까?
- ③ ‘무지개’가 ‘물’과 ‘지개’가 합쳐져 변화한 말이라면, 변화한 때는 언제일까?
- ④ ‘무지개가 뜨다’, ‘무지개가 걸리다’는 표현은 적절한 표현일까?

17. 표준어 규정에 맞지 않는 단어로만 짝지은 것은?

- ① 솟양 — 솟기와
- ② 솟병아리 — 솟당나귀
- ③ 수돼지 — 솟은행나무
- ④ 수캥아지 — 수탉

18.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기〉—

어이려뇨 어이려뇨 식어마님아 어이려뇨
쇼대남진의 밥을 담다가 늦쥬격 잘를 부르쳐시니 이를
어이혀려뇨 식어마님아 저 아기 하 걱정 마스라
우리도 저머신 제 만히 것거 보왔노라

- ①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대화로 작품이 전개되고 있다.
- ② 동일한 시어의 반복을 통해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 ③ 인간의 범상한 욕구를 조명하여 희극적 묘미를 드러내고 있다.
- ④ 아랫사람의 잘못으로 인해 인물들의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19. 밑줄 친 ‘당신’ 중에서 인칭이 다른 것은?

- ① 할아버지께서는 생전에 당신의 장서를 소중히 다루셨다.
- ② 당신에게 좋은 남편이 되도록 노력하겠소.
- ③ 당신의 희생을 잊지 않겠습니다.
- ④ 이 일을 한 사람이 당신입니까?

20. <보기>의 (가)와 (나)의 공통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기〉—

(가) 강호(江湖)에 ㄱ을이 드니 고기마다 술져 잇다
소정(小艇)에 그물 시러 흘니 썩여 더져 두고
이 몸이 소일(消日)하옵도 역군은(亦君恩)이샷다

(나) 추강(秋江)에 밤이 드니 물결이 츠노미라
낙시 드리치니 고기 아니 무노미라
무심(無心)흔 달빛만 싯고 뽕비 저어 오노라.

- ① 자연 속에서 한가롭게 지내는 삶을 표현하였다.
- ② 배를 타고 낚시를 즐기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③ 동일한 문학 장르의 정형시 작품들이다.
- ④ 임금의 은혜를 생각하는 마음이 표현되어 있다.